

제2절 문화예술단체²⁰⁵

1. 격암사상선양회(格菴思想宣揚會)

격암 남사고²⁰⁶ 선생 사상을 재조명하여 정신문화를 계발 실천하고 유적사업의 창 의 개 발로 문화산업을 진작시키고자 2010년 당시 남문열 울진문화원장의 주도로 2011년 4월 22일 울진문화원에서 격암사상 선양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임광원 울진군수, 윤용섭 한 국국학진흥원 교육원장을 비롯하여 회의 주비위원장 전광순, 민선 초대군수, 군 의장 의원 등의 내빈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한기 전 동국대 문과대학장을 초대회장으로 만장일 치 추대하였다. 상임이사 전태석, 이사 15명, 감사 윤근오, 감사 전이중,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을 선임했다.

격암 선생 사당 외 수개의 문화자산과 그 부대 재산의 수호 및 봉사(奉祀)와 학덕선양사 업을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南格菴先生 祠堂, 精舍, 書院의 奉享 및 維持管理, 改善擴張에 관한 事業
2. 學德宣揚上 必要한 圖書의 刊行 및 講演會의 開催
3. 遺物 蒐集, 研究資料 調査, 發刊, 普及
4. 기타 目的 達成을 위한 附帶事業

2013년 12월 격암 별묘 이진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2015년 총회에서 제2대 남문열 회장과 전이중 상임이사, 노만성 감사, 이시우 감사가 추대되어 임기 4년을 맡았다. 2016년 소설 가 남지심 작가에 의해 소설 별에서 온 조선의 위대한 예언가 『격암 남사고』가 출간되었다. 2017년 격암 기념관과 생가가 울진군과 선양회의 노력으로 준공되었다. 2018년 4월 20일 격 암 선생 위패 봉안식을 하였다. 2019년 총회에서 회장 남철균, 상임이사 전명환, 감사 주기 원, 전병순이 선출되었다. 2021년 현재 7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05. 문화예술단체의 내용은 『울진군지』(울진군지편찬위원회, 2001),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을 참조했다.

206. 격암 남사고 선생은 1509년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누금동에서 이조 좌랑을 지낸 휘 남희백(南希伯)의 아들로 영양남씨 휘 남홍보(南洪輔)의 11세손으로 태어나서 1571년에 향년 63세 타계하였다. 선생은 천부적인 총명과 대인의 기상을 지녔으나 울진이라는 역사 지리적 여건과 학 맥으로 대가에는 인연이 없었고 독행과 효렴으로 명종조의 사직 전 참봉과 선조 초에 천문교수에 임명된 것 외에는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우주 와 인간의 운행을 주로 설명하였기에 세인들은 해동강철이라 불렀고 봉래 양사는 선생은 자동선생으로 받들었다. 미관말직이지만 오직 우국 과 애국지성으로 동서분당, 임진왜란 가동청정의 내침 등 수많은 예언을 남겼다. 선생은 16세기 울진 유교선비의 전통과 지역유교문화의 표상 이 되어 옥계서원 등에 배향되었으나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고, 1959년 이후 상현사에 배향되었다.

2. 망양문학회

망양문학회는 울진군에서 문학에 취미를 가진 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1956년 10월 경 조직되어 1960년대 후반까지 활동했던 문학단체이다. 망양문학회의 회지는 등사판으로 연간 발행되었다. 회지는 4집까지 내다가 침체되었고, 1965년 2월에 다시 5집을 내면서 활동을 재개하였다. 5집부터는 월별로 회지를 발간했다. 회지의 내용은 20여 쪽 분량에 시·동시·동요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회원은 이대연·남주종·윤석·박영호·한창희·김상진·윤영기·서순영·주창준·윤정·김가진·황익구·원용수·최용순 등이다. 이 단체는 1968년경 해체되었다.

3. (사)울진군 서예술인연합회

사단법인 울진군 서예술인연합회는 군내 각 읍면에서 150여 명의 서예인이 11개 서실[청운서화연구실·울진문우회·열목회·성류연서회·죽포연서회·칠보연서회·백선서예연구원·후포연목회·문인회·후포일목회 등]에서 취미활동과 더불어 각종 서예대전에 응모 수준 높은 필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단체로 구성하여 후학의 지도와 서예의 창작 활동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연구·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서예술인의 권익을 신장 보호하며 그간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5년 5월 20일에 발기하여 울진문화원의 산하 조직으로 명실상부한 사단법인 울진군 서예술인연합회[초대회장 윤근오]로 정식 등록 되었다.

전시회는 도록[서화작품집]의 인쇄 보급으로 주민의 서예술에 대한 참여 의욕유발과 청소년의 인성개발과 더불어 사회규범 및 질서 의식 정립,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및 서력 신장 효과를 위해 회원의 창작발표 전시회 6회[2015~2020] 및 각 서실 자체 전시회 지원, 울진군 각종 축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에서 발행되는 월간 서예문인화에 매년 등재 홍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울진서예술인들의 활약상과 서예술로 인한 문향 울진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군의 전통문화 예술의 하나인 서예술은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울진봉평신라비전국서예대전과 함께 독특한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콘텐츠 요소가 되었고 한국적인 예술미를 군민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진지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진지회[울진예총 혹은 한국예총 울진지회]는 2011년 9월

16일 김진문을 울진예총 초대지회장으로 추대했다. 2011년 10월 울진 연예인협회, 울진 미술협회, 울진 사진협회 등 3개 단체가 연합하여 중앙단체인 한국예총에 가입하고 인준을 받았다.

2012년 제1회 울진예총 예술제[사진전, 미술전, 축하공연 등]를 청소년수련관과 연호정 일대에서 개최하였다. 2017년에 울진예총[지회장 장진업]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울진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2017년 울진종합예술제’를 연호정 일원 및 울진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2020년에는 울진 문화예술의 한마당 축제인 제9회 울진예술제를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울진예술제는 울진예총이 주관하고 산하 미술협회·사진협회·연예인협회·국악협회·동아리회원 등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흥겨운 축제 한마당을 펼쳤다.

5. 시우회(時友會)

1960년 당시 울진에서 서울의원을 경영하던 의사 윤창용(尹昌容)이 지방의 인사들과 함께 시조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시조 보급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으나 윤창용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게 됨에 따라 활동이 침체되었다. 그 후 시조의 전수와 진흥을 위한 조직체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통감한 최현중(崔鉉琮)·장진택(張軫澤)·남용극(南容克)·김복규(金復圭)·장운룡(張雲龍)·장성업(張聖業) 등의 지방 인사들이 발의하여 울진 연호정에 모여 1962년 9월 15일에 울진시우회를 조직하였다. 울진시우회는 해마다 9월 15일, 연호정에서 창립기념대회와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하였다. 1968년에는 대한시우회에 입회하여 전국 무대에 진출하고, 전국경창대회에도 출전하였다.

1968년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우회의 활동이 저조해지고 점차 쇠퇴하여 명맥만 이어오다가, 1984년경에 부진을 통감하여 재건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해 12월에는 울진시우회 개편 총회를 개최, 65명의 회원이 확보되었다.

1991년 8월 27일 대한시우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전, 문화부에 등록하였다. 동시에 울진시우회도 그 하부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시조협회 울진군지회로 등록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2021년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6. 아동문예연구회

아동문예연구회는 1963년 8월 망양문학회 동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1970년까지 활동했다. 초대회장은 남주종이 맡았고, 회지로는 『울진문예』를 발간했다. 현재 남아 있

는 5집을 보면 아이들의 시·산문, 지도교사의 평, 백일장대회 입선작품들을 실었다. 이 단체의 활동으로는 1968년 8월 1일에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여름 세미나를 성류굴에서 개최한 것과 서울대학교 이응백 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 것 등이 있다. 회원은 남주중·김상진·김가진·박봉주·서순영·원용수·윤영기·윤정·한창희·황익구 등이었다. 현재 이 단체는 해체되어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7. 올림문학회

올림문학회는 1980년 말 독서토론회에서 출발하여 문학회 활동으로 점차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독서토론회, 창작작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의 활동을 이어오던 올림문학회는 1988년 초에 작품집 3호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해체의 원인은 각 회원들의 문학 열정이 작품의 성과로 곧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초의 회지는 1981년 9월경에 나왔으며, 시작 무렵에는 월별로 1회 발간되었다. 1986년 초까지 40여 호를 발간했으며, 회지에는 주로 회원들의 시 작품을 실었다. 문학지로서의 창간 제1집은 1982년 4월 24일에, 제2집은 1985년 12월 23일에, 제3집은 1987년 2월에 나왔으며, 모두 소책자로 제작되었다. 창간 제1집에는 시·평론·수필·콩트가 실려 있고, 글을 실은 회원은 18명 정도였다. 제2집에는 17명 회원의 시와 산문·콩트가 실려 있다. 제3집에는 시·산문·동시·서평과 글을 투고한 회원 각자의 문학에 대한 생각을 끝부분에 함께 간략히 싣고 있다.

8. 울진문학회

1992년 8월 20일경 황무광·이규상·김진문·남효선·전우찬·최동운·남태식·이영환이 발기하여 울진문학회를 창립하였다. 그 해 8월 30일 울진문학회 정관을 제정하여 같은 날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황무광, 부회장에 이규상, 총무에 남효선을 선출하였다. 1992년 10월 초 『울진문학』을 발간함으로써 울진에도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름에 걸맞은 문학지가 탄생하였다. 1992년 10월 초 문학회 기관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토론회와 편집회의를 거쳐 기관지 이름을 『울진문학』으로 결정하였다.

울진문학 창간호 편집위원으로 이규상·김진문·남효선을 선임하고, 1993년 3월에 『울진문학』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울진문학』 창간호에는 지역 기관장들의 축간사와 축시, ‘지역문학의 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 초대의 글, 회원들의 시, 시조, 동시, 수필, 단편소설, 희곡, 평론과 향토민요 등이 실려 있다. 창간호 발간기념식은 농협 울진지부 강당에서 1993년 4월 초순경에 열렸다.

1994년에 당시 지역의 유일한 지역신문사인 『울진저널』(발행인 남효선)과 함께 덕구온

천호텔 강당에서 ‘전국소설가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소설가대회는 울진지역의 첫 전국 규모 문학인 대회로 이문구·김성동·김남일·최인석 등 국내 저명 소설가를 비롯하여, 평론가, 시인 50여 명이 참가했다.

‘96문학의 해’를 맞이하여 민족문화작가회의, 울진문화회와 후원 기관으로 울진저널, 덕구호텔이 함께한 『분단시대 작가정신』이란 주제로 심포지움이 있었다.

2005년에는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D-30일을 기념하는 ‘2005 생명문학축전-울진문학축전’을 주관하는 등 전국 규모의 문학행사를 잇따라 개최해 울진지역 문화지평의 외연 확장을 주도하였다. 또 매년 지역 작가들의 신작을 중심으로 사화집을 발간해 울진지역 문학의 내실을 다졌다.

9. 울진문화원



<그림 20> 울진문화원

울진문화원은 군민의 문화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의 목적으로 1957년 3월 향인 임대득(林大得)이 울진을 중심가에 현 문화원 전신인 문화원을 설립하여 정부 시책의 영사 홍보 활동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76년 8월 30일 군내 각 읍면의 뜻 있는 인사 21명이 문화원 설립 발기 회의를 개최하고 1976년 9월 6일 사단법인 울진문화원 창립총회의 결실로 초대원장(初代院長)에 임상규(林象奎)를 선출하고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에 의거 1976년 12월 16일 문화공보부장관 인가 제298호로 등록되어 원장 취임 인준을 받았다.

울진문화원 청사는 1977년 9월 1일 군에서 매입한 구(舊) 우체국 청사를 무상임대하여 군

내 각계인사와 재경·재구·재부 출향인사의 후원으로 사무실·전시실·도서실·영사실 등을 갖추었다. 1980년 군민회관건립 계획에 따라 구청사를 철거하고 그해 8월 7일 군민회관 준공으로 건물 구조는 사무실·전시실·소회의실·600여 석 외 관람석이 있는 강당을 두고 문화원이 무상 임대로 문화의 전당인 울진문화원의 면모를 갖추고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향토문화 예술대회 등 군민 총화단결의 도량(道場)으로 발전하였다.

울진문화원은 문화사업으로 1) 향토 고유문화 보존 및 전승, 2) 향토 사료수집[향토지 발간], 3) 문화학교 운영[지역사회교육], 4) 홍보전시활동, 5) 지역문화개발활동, 6) 지역 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에 진력하고 있다.

10. 죽변종합고등학교 합주단

죽변종합고등학교[이하 죽변종고] 합주단은 1992년 울진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소재한 학교에 대한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창단되었다. 죽변종고의 교사 장기태를 단장으로 45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죽변종고 합주단은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북관악제에서 2위로 입상하였다. 2002년에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제1회 관악합주단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이 밖에 어린이날, 현충일, 한국전쟁 관련 행사, 군민체전, 군민음악회 등과 같은 울진군의 기념일이나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11. 한국미술협회 울진지부

한국미술협회 울진지부는 1996년 10월 창립하여 ‘울진미술협회’로 활동을 해오던 중 2003년 11월 12일 한국미술협회 울진지부[초대지부장 박영열]로 승인되어 지금까지 울진미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울진지부는 2021년 현재 한국화·서양화·조소·서예·수채화·디자인·공예·민화·판화 등 7개 분과에서 35명의 회원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진미술협회전, 송(song)울진전, 보령시·울진군 미술교류전, 성류문화제 등이 있다. 특히 2003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송(song)울진전’은 울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전시로 전국 구상계열의 뛰어난 작가들을 초대하여 울진의 풍광을 스케치하고 그 스케치를 통한 작품으로 울진지역 작가와 함께 울진과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매년 전시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울진의 미술과 울진의 풍광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미협 울진지부는 2013년도에 ‘올해의 작가상’을 마련하여 매년 지역의 작가 중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는 미술인을 선정하여 상금과 아울러 개인전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인 주인예술촌은 2011년에 울진미협이 주관하고 울진군의 지원으로 조성되어 김경하·김지훈·서정희·박영열·홍경표 등 여러 명의 작가가 그동안 창작에 전념해왔다. 2021년

현재 주인예술촌의 증축 공사로 인하여 작가들의 창작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다.

12. 한국연예협회 울진지부

한국연예협회 울진지부는 2001년 10월에 발기하여, 현재 건축·미술·음악·무용·연예·국악·사진·취미 등 8개 분과에 정회원 20명과 일반회원 30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 보존, 교류와 문화예술의 역할을 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문화예술인 상호 간의 업무 질서 유지와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복지 증진, 회지 및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의 출판 지원, 울진군 발전을 위한 축제 행사 지원, 각종 문화예술에 관한 공연 및 전시회 지원,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 등이 있다. 활동 사항으로는 2002년 송년음악회·2003년 한마음음악회·울진대게축제·숲속음악회·송년음악회·2004년 한마음음악회 등을 주최하였고,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등 각종 군내 축제에서 공연하고 있다.

13. 기타

울진에는 위에서 언급한 단체 이외에도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국악에는 (사)한국국악협회 울진지부가 있고 회원 수는 약 50명 내외이다. 공예에는 울진공예인연합회가 있으며, 회원 수는 약 30명 내외이다. 이 단체는 2018년에 해체하였으나, 재결성할 예정이다. 무용에는 울진연호무용단이 있으며, 회원 수는 약 10명 내외이다. 합창에는 울진군립합창단이 있으며, 회원 수는 약 20명 내외이다. 풍물에는 울진문화원 파도풍물단이 있으며, 회원 수는 약 40명 내외이다. 문학에는 울진문인협회가 있으며, 회원 수는 약 40명 내외이다. 사진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진지부가 있고, 회원 수는 약 30명 내외이다.

역사에는 울진향토사연구회가 있으며, 회원 수는 약 20명 내외이다. 시조에는 (사)대한시조협회 울진지부가 있었으나, 회원 수는 약 20명 내외를 유지해 오다가 2019년 3월에 해체하였다.

소리에는 (사)서도창배뱅이 연구보존회 경북지회가 있으며, 회원 수는 약 50명 내외를 유지해오다가 2019년 3월에 해체하였다. 음악에는 울진윈드오케스트라와 울진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으며, 각각 20명 내외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²⁰⁷

오상택

207. 회원 수는 2021년 2월 19일 기준이며, 울진군에서 자료를 제공했다.